

제54회 일본그리스도교단과의 선교협력위원회 개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Zoom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일본그리스도교단(이하UCCJ)과 제일대한기독교교회(이하KCCJ)의 선교협력위원회가 올해에는 제54회로서 지난 6월20일(월)에 개최하였다.

〈양 교단의 선교과제에 대하여 - 코로나 재난에 있어서의 교회 청년활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진 금번 위원회에는 UCCJ에서 이시바시 히데오 총회 의장을 비롯하여 10명이, KCCJ에서 나카에 요이치 총회장을 비롯하여 11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각 교단의 참가자 소개와 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는 후, 주제에 따라서 발제에 들어갔다.

먼저, KCCJ에서는 신도위원장 양양일장로(오사카교회)가 〈휴먼 크라이시스 시대의 교회 청년 지원 미션을 생각하여〉라는 제목으로, (1)오늘날 코로나 재난에서 청년선교를 생각, (2)청년 육성의 시점 및 실행에서, (3)본격적인 청년 선교와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교회 형성을 생각, (4)발제의 마지막으로, KCCJ의 역사적/사회적 사명을 민족교회로서의 역할, 또한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선교, 그것을 KCCJ히라노교회가 하고 있는 베트남 청년 선교 활동 등을 소개하였다.

UCCJ에서는 石山教会(滋賀県)의 須賀舞 전도사가 「스마트 폰 하나로 할 수 있는 청년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목회하고 있는石山教会가 SNS를 이용한 전도 활동 등을 소개하였다. (1)YouTube를 활용해서 「성경 낭독회」 등으로 새롭게 교회 방문자가 늘어나고 세례받는 자도 주어졌으며, 또한 교파를 초월하여 목회자와 신도들과의 만남이 주어졌다는 것을 공유하였다.

2022년도 〈평화메시지〉의 초안에 대하여 협의, 채택하고 각 교단의 8월 기관지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관서지방회 아슈람기도수양회 개최 에노모토목사(아슈람센터)를 강사로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관서지방회 전도부 주최로 2022년 아슈람기도수양회가 「앉아서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6월 12일(주일) 오후3시부터 오후5시까지 오사카북부교회에서 개최되었다(76명 참여). 이번에는 강사로 아슈람센터 주관목사인 에노모토 메구미 목사를 모셨다.

프로그램은 3부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교토교회 청년회 찬양팀의 인도로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에노모토 메구미 목사의 간증을 듣는 「말씀의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관서지방회 소속 11부회 각 대표에 의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에는 오사카북부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도 하였다.

(전도부 서기 김유양 전도사)



전국여성회 제63회 정기대회 개최 신 회장에 송복희(나고야)씨를 선출

2022년 6월 27일(월) 코로나 사태로 1년 연기되었던 제63회 정기대회가 오사카교회에서 개최되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다.

개회예배에서는 아라이 유키목사(교토남부교회)가 「가장 소중한 관계(누가10:38-4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채은숙목사(오가키교회)의 시식으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내빈 대표로 KCCJ 총회장인 나카에 요이치목사로부터 축사가 있었다.

대회에서는 총괄, 각국, 각지방회 보고, 위임개선, 총무승인 건의안 결의가 진행되었고, 비상사태에 관한 부대사항을 포함한 11개 항목의 건의안이 승인되었다.

폐회 예배에서는 배정애목사(히라오카교회)의 「당신은 행복한 자(신명기 33:26-29)」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는 후 축도로 폐회되었다.

제63회 정기대회에서 새로이 선출된 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송복희(나고야) 부회장: 최미혜자(무코가와)

서기: 고경미(오사카) 부서기: 이민례(니시야라이)

회계: 이은주(요코하마) 부회계: 신정자(도요나카제일부흥)

교육국: 김금순(후세) 선교사회국: 한영란(후쿠오카)

재정국: 장지선(오사카) 마음의케어국: 윤풍자(고베)

관동회장: 김혜진(가와사키) 중부회장: 이정자(나고야)

관서회장: 김인희(교토) 서부회장: 양율자(고베)

서남회장: 이호자(고쿠라)

회계감사: 박영원(시나가와), 유정혜(무코가와)

총무: 이시바시마리에 (보고: 고경미 서기)



중부여성회 3역 확대회의와 연수회 복음 그림 편지 쓰기 강습을 받아

서부지방 교회여성연합회는 제19차 3역확대 연석회의와 연수회를 3년 만에 7월 7일(목) 오후 1시부터 고베교회에서 참석자 20명(4 교회)으로 개최했다. 코로나사태로 각 교회여성회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각 교회여성회의 활동 보고를 듣고 각자의 기도 과제를 다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서부지방 여성회에서는 계속해서 교회소식을 발행하고 교회 방문을 성사시키며 각 교회 여성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연수회에서는 강사로 후쿠다 도모코(가와니시교회 집사) 씨를 맞아 복음 그림 편지 쓰기 강습을 받았다. 강사의 오리진널 삽화가 그려진 엽서에 참가자들이 각자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성경 구절을 쓰고 기도와 사랑을 담아 고베교회 앞 우체통에 투합했다.

(보고: 최미혜자, 황영옥)



오사카교회 강지선, 최임태 장로 장립 고주리, 문병순 권사 취임, 명예추대식도



오사카교회 예배당 3년 만에 클로리아 합주단의 우렁찬 연주가 울려 퍼졌다. 지난 7월17일 주일 오후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하여 연주 활동을 하지 못했던 취주악단의 연주로부터 시작된 강지선, 최임태 장로 장립식, 고주리, 문병순 권사 취임식, 정년으로 은퇴하는 문철순, 정홍권, 김성원장로의 명예장로 추대식, 박현자 명예권사 추대식, 부영범, 장희숙, 이용문, 김충자 명예집사 추대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당회장 정연원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는 총회장 나카에 요이치 목사의 〈지금 가라〉(출3:10~15)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장로 장립식은 관서지방회장 대행 박영자목사의 사식으로 서약, 안수기도, 선포가 있었고, 권사 취임식과 명예추대식은 당회장 정연원목사의 사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장로 장립받게 된 최임태집사는 전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장립식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건강이 회복되는대로 날짜를 잡아 안수식을 거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장립받은 강지선장로는 1965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2001년부터 오사카교회의 집사, 권사로 섬겨왔다. 최임태(장로)는 1975년 최정강목사의 자녀로 일본에서 출생하여 2006년부터 집사로서 오사카교회를 섬겨왔다.



신축교회당 건축비 8千万円 상환 완료

기후교회 고 성 목사



기후교회는 2016년 7월 건물 노후화와 그해 봄 잦은 지진으로 교회 외벽이 파손되었고 전문가의 판단으로 더 이상 본당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긴급히 인근 일본교회(일본기독교단 화양교회)로 예배 처소를 옮기게 되었다.

믿음의 선배들이 모아놓은 259만원의 건축현금과 기후교회 명의로 된 주차장(새 교회당이 지어질 토지)이 있었기에 새로운 교회당건축을 결단하였다(이전 교회당은 빌린 땅에 지어져서 채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신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오직 기도로 하나

관동지방회 김신우목사 위임식 거행 동경중앙교회에서 조은경권사 취임식도



2022년7월24일 주일 오후 동경중앙교회에서는 새롭게 부임한 김신우목사의 위임식과 조은경권사의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임시당회장 김병호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 예배에서는 구자우목사(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의 〈목사, 디도〉(딤후1:7-9)라는 설교를 하였다.

목사 위임식은 관동지방회장 이명충목사의 사식으로 진행되어 소개, 서약, 선포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권사 취임식은 동경중앙교회 신임 당회장 김신우목사의 사식으로 거행되었다.

축하의 시간에는 김신우목사가 부목사로 시무했던 오사카교회의 성가대가 영상으로 찬양을 보내왔으며, 선교사로 파송 후임하고 있는 제주 성지교회에서는 노경천목사로부터 영상 축사도 보내왔다.

이번에 관동지방회로부터 동경중앙교회의 목회를 위임받은 김신우목사는 1979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일장신대학교 신학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대한예수교장로회(PCK) 인천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제주성지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하던 중, 20018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부터 일본 선교사로 파견받아 오사카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겨왔다.

가족은, 부인과 3남매가 있다.



남만 의지하고 나아갔다. 2018년 4월 30일, 1년 9개월 만에 신축 교회당 건축이 완공되었다. 총 건축비(건축 및 태양광 발전 등 교회 설비 포함) 8000万円이 들었고, 이 중 건축용자1500만엔(에크로프 1000万円, 나고야교회500万円)은 교회당 완공 후 4년 3개월 만인 지난 2022년 4월12일부로 모두 상환하였다.

하나님께서 30배 이상의 축복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교회당 건축을 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들을 간증하자면 한이 없다. 그 동안 기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원해주신 제일대한기독교교회 많은 교회와 한국과 해외 교회에 감사를 드린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해온 기후교회 신도들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講壇掛・ストール販売

在日大韓基督教会ではKCCJのロゴ入り講壇掛・ストールを制作・販売しています。価格は講壇掛・ストール共4色セットで各1万円(約半額) 講壇掛・ストール両方ご購入の場合は1万5千円です。※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 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나고야교회 박성환 명예장로 소천 도일 후 20년간 장로로서 봉사, 그 후 기국



나고야교회 박성환 명예장로가 지난 2022년 7월6일에 91세로 소천하였다.

고 박성환 장로는 1932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1975년에 기독교대한감리회 봉천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하였다.

1991년에 나고야교회에 이적하여 협동장로, 1997년부터 시무장로로 섬겼으며 2002년 은퇴후에 귀국하였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 13년간 일본 성예성구사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년 나고야교회 명예장로로 추대를 받았다.

<教会名과 住所 変更>

京都東山教会⇒京都市西山区教会
〒610-8046 京都市西山区東九条西山町29-2
電話075-366-9787 cell 070-2668-7447

福岡教会 担任牧師招聘

- ・資格: 45歳~55歳の 総会 또는 總會와의 宣教協約이 있는 韓國教団牧師
- ・必要書類: 履歷書、説教과일
- ・募集期間: 2022년 8월 22日 까지
- ・連絡: 金仁果牧師 (電話 080-3074-2770)
kiminkwa709@gmail.com

KCCJ・CCJ 선교협력위원회 공개강연회(2021년 12월 9일)

공개강연
연재 5

죄책(罪責)을 지고 주님께로 (5·끝)

吉高 叶 (요시다카 카노우) 목사(일본NCC의장 / 일본침례연맹市川八幡教会)

5.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없었던 헤이트와 차별, 배외주의와 역사 수정주의, 천황제 강화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본 교회가, 과거의 침략 전쟁에 대한 회개와 전쟁 책임 위에 서서 생각하고, 역사에 대해서도 책임적 자세를 가지고 걸어왔던 <생활 방식>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일본의 교회는, 역사를 왜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自己愛性>이나 타인의 존재를 혐오하는 <배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 일본 사회에서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교회나 재일한국교회, 혹은 아시아 국가들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역사의 주님 앞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일본 교회에서 써야 할 신앙적 문서는 지금도 「죄책적」이어야 하고, 교회 교육, 신앙 교육도 또 「죄책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점점 <화해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 심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화해의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관여가 교회 선교의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해>라는 작업을 성실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찢어져 대립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역사 그 자체를 아는 것,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비극을 직시하는 것, ◇왜 그것이 일어났는지를 분석하는 것, ◇왜 그것을 멈출 수 없었는지를 검증하는 것,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과 역사와 이웃 앞에서 생각하는 것.

이 과정의 처음에 확립해야 할 것이 <죄책>이며, 이러한 과정의 끝까지 유지해야 할 것도 <죄책>인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가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에 초대되고 있다는 기독교 진리와 마찬가지로 ‘죄책감을 고백한 자’로서의 역사 형성(사회 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로 ‘점이 아니라 線의 죄책’이며, ‘죄책적인 삶을 살고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를 ‘고립·무연(無緣)’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인근 나라, 혹은 세계의 나라와 함께, 국제 의존적, 국제 공유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죄책을 이어가야 하며, 이어받은 자로서 개인의 죄책으로부터 더욱 고차적인 보편적인 진리로서의 죄책성으로 높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십계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 20: 5~6)



이스라엘은 죄에 대한 책임이 ‘물려받은 빚’으로 알고 그것을 계승함으로써 회복과 창조로 인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회복의 길, 창조의 길은 <죄책의 계승>이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차세대 안에서 새로운 시사를 만들어 새로운 선택으로 초대합니다. 그것은 가시밭 길이 아니라 힘들지만 부활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역사의 기억’에 대한 불균형은 미래를 현저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기억의 균형, 역사의 공유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는 세계에 차세대를 사는 사람들을 미래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한 <죄책감>을 계승하고 짊어지고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세계를 향하여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죄과에 허덕이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의 가책에 시달리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용서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종말론적인 전망 속에서 죄책을 계승하고 담당하는 것이 하락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직면하면서도 책임있게 준수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철학이란, 모든 사물을 구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체지할 양상 아래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언젠가 어느날 메시아의 빛에 비추어져 나타났을 때, 그것이 가난하고 왜곡된 모습에 이르기 까지 세계를 바꾸고, 이화(異化)하여 그 다양한 본질이 나 주름(균열)이 노출되는 것 같은, 그러한 조망(perspective)을 세워가야 할 것이다.” (테오도어 아도르노 Theodor W. Adorno, 미니마 모랄리아)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표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년 9월 20일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2년 8월 1일 (월) 제 818 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원)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 나카에 요이치·편집인 / 김 병 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2021년 재일대한기독교회·일본기독교단 평화 메시지>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나카에 요이치
일본기독교단 총회의장 이시바시 히데오

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헤이트 크라임(혐오범죄)>에 대하여

일본에는 외국인에 대하여 헤이트 스피치, 미국에서는 아시아 주민들을 향한 헤이트 크라임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속하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 18)는 말씀에 따라 차별이 없는 사회가 실현되는 것을 기원하며 그를 위해 사랑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가득한 오늘의 상황에서야말로 사회에서 약한 입장에 놓인 사람들의 생명과 평안이 지켜지고 지탱되어야 합니다. 사회의 동요에 동승한 모든 헤이트에 반대하고, 이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표명합니다.

<난민/재일외국인의 인권에 대하여>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의한 각 교회, 학교, 시설 등에서도,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활동하며 고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특히 이주자나 난민 신청자들에게 대한 차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자숙>을 <요청> 하면서 생존에 필요한 <보장>을 꺼내어 약한 자들에게 더한 압박과 위기를 계속 주고 있는 차별적 사태가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난민을 <피난민>과 구별하고 있습니다.<난민>과의 차별적인 처우와 차별이 왜 일어나는가?

이 상황에서 특히 뿌리깊은 차별의식과 배외적 정책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단편이기도 하지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우리의 선교에 있어서도 기도와 지원의 연대를 환기해 나아가야 합니다.

<빈곤 확대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빈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난, 상습적 고용의 불안, 학교에서의 이지메, 부당고, 직장에서의 이지메, 이러한 이지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격차를 이유로 교육의 격차, 학력의 격차, 의욕의 격차가 퍼지고 있습니다. 무연(無緣)사회의 확대가 연결의 격차를 낳고,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가능성을 살리지 못하고, 약자로 전락하고,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표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지구를 석권하는 가혹한 글로벌 경제하에 격변해 가는 사회에서 이 세상에 보낸 받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나그네를 환대의 정신으로 맞이하면서 단순히 민족적 교회가 아니라 이민 배척·마이너리티 배제에 대하여,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하나님의 권속>(에베소서 2: 19)으로 개회되어 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교회 자체가 지금부터 다음 시대에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보내시고, 쓰임 받는 길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 14, 16)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일본기독교단과, 1984년 선교협약을 체결한 후 38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연결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적대적 관계의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화해와 평화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며 2022년 <평화의 메시지>를 표명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에 대하여>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 침공하였습니다. 이 일은 어떠한 이유를 말해도 결단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엔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운송부대에 대해 특별 태세에 임하도록 명령한 것에 대하여, 세계 유일의 전쟁 피폭국인 일본의 기독교회로서 어떻게 해서라도 최악의 사태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는 전쟁을 벌임으로 군사비를 배로 증강하려는 것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 11)는 말씀에 따라 러시아 군사 침공을 막지 못한 우리들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부터 즉시 철퇴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헌법 개정의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는 <일본국 헌법>의 기본원칙인 주권재민, 기본적 인권, 평화주의를 지키고, 국가 우선의 헌법으로 가는 개헌의 시도, 또 전트력 유지를 시행하는 개헌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정부는 긴급 사태 조항에 대하여, 동일본 대진재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대응이 지연된 것은 헌법에 긴급 사태 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 등에서의 대응은 법률의 제정이나 적절한 실시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고, 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침공을 한 일로, 헌법 9조를 개악(改憲)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헌법 개악(改憲)을 우려하고 헌 헌법을 옹호하고자 하는 많은 주민과 함께 계속해서 이러한 움직임에 저항할 것을 표명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대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의 위협이 되면서 일본에서도 사태가 심각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 감염으로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분들, 염려와 불안 속에 있는 분들에게 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기도합니다.

별써 각 교회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의 전국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이 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쁨이 충만